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이 현 송**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에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만족도로 측정된 주관적 삶의 질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가구 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의 5개 삶의 개별영역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50% 이상을 설명하는 데, 그 중 수입에 대한 만족도만으로도 40% 이상이 설명되며, 수입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만족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소득만족도와의 연관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이는 가구 소득의 경우이나 개인 소득의 경우이나 유사하게 실제 소득이 소득만족도의 10%정도의 변이만을 설명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생활만족도의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변량의 10% 정도만을 설명할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단어 : 삶의 질, 만족도, 생활 만족, 소득 만족

* 본 연구의 기초가 된 조사 자료를 제공한 한국노동연구원 및 본 원고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준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960년대초 서구에서 전후의 경제발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주리라던 암묵적 기대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삶의 질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아가고 있으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모색의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접어들어 상당한 소득수준에 도달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논의가 일시 중단되다 요즈음 들어 다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의 객관적인 수준에 관하여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 지표 조사 및 관련 연구에 의하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박경태 외, 1995; 이현송, 1997),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분석들이 결여된 데 더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만한 조사 자료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에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주관적 삶의 질 중 인지적인 평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 삶 및 삶을 구성하는 주요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영역인 소득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마지막으로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을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해 검토한다.

I.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 국가 수준에서 일인당 GNP 즉 일인당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살만한 사회로 근접하게 하는 열쇠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일 개인의 수준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 및 행복도를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서구 사회의 자각은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살만한 사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이라 하여, 객관적 삶의 조건이 경제적 수준이라는 단일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생활, 안전, 형평 등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다차원적인 삶의 조건들을 측정하고 한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전략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전되었다. UN의 인구사회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나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지표체계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각 나라들 나름의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여 객관적 삶의 조건 즉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Shuessler and Fisher, 1985).

이렇게 한 국가의 수준에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집합적으로 측정,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계를 갖는다. 우리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 강하다. 집합적으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여부는 개개인에게 만족한 혹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개인 수준에서의 경험적 접근을 통하여서 밖에는 확인할 수 없다. 즉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삶을 펼치는 조건을 제공할 뿐,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개인적 체험의 영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합적 수준에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연구하던 1960년대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관심의 장이 옮겨가게 되었으며, 연구 대상도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노인, 환자, 가정주부, 청소년, 실업자 등 특수 집단으로 다양화되었다(Strumpel, 1972).

객관적 삶의 질과는 달리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하므로 개념의 정의 및 측정이 매우 힘들며,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 이론을 구축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혹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Diener, 1999).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영역에서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데, 상호 독립적인 두 차원 즉,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과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으로 구분된다. 즐거운 감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많고 불쾌한 감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적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 한편 인지적인 영역서 주관적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로서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행복의 경우와는 달리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은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거꾸로의 경우도 가능하다.

주관적 삶의 질의 두 영역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에 관하여 캠퐸(Campbell, et al, 1976 : 7-11)은 인지적 영역 즉 '만족'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보다 주관적 삶의 질 연구를 위하여 더 유용한 개념 정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행복감은 만족도보다도 더 주관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이 강하며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인생 경험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정의와 측정을 내리기 매우 힘들고 또한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도 어렵다. 반면,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만이 아니라 삶의 개별 영역들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어 보다 더 신뢰도 있는 측정이 가능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행복이란 분석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개입에 의한 개선도 어려우므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족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을 만족의 개념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 진영으로 크게 구분된다. 하나는 소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bottom-up approach)이라 하여 삶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인간의 욕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면 주관적 안녕이 높아지리라는 가정을 뒷받침에 깔고 있다. 이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Strumpel, 1972 ; Campbell, et al, 1976) 응답자가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삶의 조건을 형

1)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만족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복의 개념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접근한 연구는 만족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최근에 들어와 일부 선진 산업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만족의 경우보다 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Diener et al, 1999).

성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또 다른 접근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접근(top-down approach)이라 하여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도 만족도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조명환·차경호, 1999; Diener, 1993)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성격이 만족 혹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 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1984, 1999).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성격 특성간에는 상호간 인과적 영향을 교환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건이 더 우세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모델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Feist,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밑에서 부터의 접근'의 입장을 수용하여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비록 객관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성격 요인보다 작다고 하여도 객관적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러한 선택의 배경이다.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궁극으로 전체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질과 전반적 삶의 질과의 관계 및 객관적 조건의 영향력 또한 주요 관심사이다.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삶의 개별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데,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개별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 영역에서 삶의 객관적 조건과는 제한적으로만 관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가하는 인지적 판단은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하는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구분은 기존의 객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취했던 구분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객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 삶이란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으며 단일한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삶의 개별 영역 구분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소득, 건강, 교육, 노동, 가족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며, 환경, 문화생활, 여가, 안전, 형평 등을 앞의 것들보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주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Strumpel, 1972; Shussler and Fisher, 1985). 객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경우 UNDP의 인간개발지수와 같이 실용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인 하나의 척도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이론적인 근거에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반면 주관적인 삶의 질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개인의 일시적 상황에 좌우됨이 없이 비교적 일관된 응답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삶의 개별 영역에서의 만족도의 종합이 아닌 그 자체로 독립된 인지적 판단의 영역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이 쌓이면 전반적 삶에 만족하게 되나, 사람들은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인지적 판단 또한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하고 있다.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맺는 관계는 인과적 관계라기 보다는 전자가 후자의 구성 부분이 되는 관계에 가깝다. 왜냐하면 삶의 개별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전자와 후자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인과적 추리를 가능케하지는 않는다(Diener, 1984).

삶의 개별 영역들 중에서도 특히 소득 및 건강과 만족도간의 관계가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었는데 결핍한 수준을 어느 정도 넘어설 경우 객관적으로 건강한가 여부 혹은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가 여부는 자신의 건강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 소득과 생활 만족도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게 관계의 강도가 크지는 않으며, 대개 0.1-0.2의 상관계수를 기록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asterlin, 1974; Campbell, et al., 1976; Diener, et al, 1993; Oswald, 1997). 또한 소득과 삶의 만족도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존재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의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소득 수준과의 관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캠벨 등은 소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흥미 있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는 데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에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경우 이 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Campbell, et al., 1976: 56-57).

소득 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간의 관계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 수준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는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의 소득 수준에 그만큼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적은 소득으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는 상식을 뒷받침하

는 결과이다. 즉 소득의 다과 보다는 어느 정도 자족하는가 하는 점이 삶에 대한 만족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돈에 집착이 강할수록 소득이 삶의 만족도와 맺는 관계는 더욱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Thoits and Hannan, 1979; Inglehart and Abramson, 1994; Sirgy, 1998).

소득이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맺는 관계가 미약하다는 주장은 대부분 서구 산업국들의 연구로부터 나온 결론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평균 소득이 낮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수는 매우 작지만, 태국, 터키, 대만 등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소득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선진 산업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절대적 소득 수준만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는 선진 산업국들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에 관하여 절대적인 결핍이 느껴질 경우 소득이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보다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Leelakulthanit and Day, 1993; Gitmez and Morcoi, 1994; Tang, 1999).

우리나라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손에 꼽을 만큼 아직 양이나 질에서 초기 단계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이론적 틀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신도철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인구 집단 혹은 특정 지역의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Shin, et al. 1983; 조명한 등 1993, 1994; 김정오 1994; 김왕배 1995; 정철희 1995; 조명한·차경호, 1999). 또 다른 유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인데 이는 주로 주관적 삶의 질의 평균적인 수준이나 집단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한국 갤럽, 1990; 한국리서치, 1992; 중앙일보, 1997).

전자의 유형에 논의를 제한할 경우, 한국인 일반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신도철 교수와 그의 동료들(Shin, et al. 1983)의 연구가 최초의 체계적 연구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전국을 대표하는 1,220명을 표집 조사하였다. 그들은 거주지역과 주택소유여부로 조사된 삶의 환경적 요인과 소득, 교육수준, 직업,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이 전체적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과 갖는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혼합하여 측정하였는데, 생활에 대한 만족, 불만족, 기쁨, 걱정의 네가지 측면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주관적 안녕감

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안녕감은 만족/행복과 불만족/걱정의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자보다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으며, 소득, 교육수준, 직업상의 지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한과 그의 동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특기할만하다(조명한 등, 1993, 1994; 김정오, 1994; 조명한·차경호, 1999).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미국의 디너(Diener)가 전세계의 41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조명한·차경호, 1999)는 깔럽의 조사연구(한국 깔럽, 1990)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외국과 비교하였다. 두 연구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만족과 불만의 중간상태인 '보통'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수준은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41개의 조사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에서는 38-40위를,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29-34위를 기록하였다. 그들은 전국의 대학생 277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 변수로는 소득, 교육수준, 성별, 연령, 종교, 결혼 여부, 취업 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외향성, 자기 통제감, 주도성, 자기 존중감 등의 성격적 요인 및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로 측정된 집단의 성향이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통제감, 주도성, 자기존중감, 외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으며, 또한 수평적, 개인주의적 집단 성향을 보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왕배와 그의 동료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 및 사회의식과 전반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김왕배, 1995; 정철희, 1995). 1,352명의 전국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삶의 다른 어느 영역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직장에 대한 헌신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근로 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특히 1997년 이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실업자들의 객관적인 실태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이훈구·이혜주, 1998; 오경자, 1998).

한편, 삶의 개별 영역들간의 중요도에 대한 비교는 삶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시도되었는 데, 개별 영역들간에 우선 순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과 가족관계가 중요하며, 그다음으로 소득과 직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한·차경호, 1999; 오세왕, 1995; 정철희 1995; 중앙일보, 1997). 이는 단지 소득이 중요도에서 비교적 상위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연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이다(Campbell, et al., 1976; Diener, 1999).

II.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는 선진 산업국들의 유형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유형에 보다 근접하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절대적 소득 수준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핍으로 인한 생활의 고통이 매우 커서 이들의 경우 물질적인 만족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리라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경제발전 및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의 상승 속도가 매우 크므로 사람들의 기대 수준 또한 매우 커서 현재의 자신의 소득에 불만을 느끼는 정도가 더하며, 따라서 소득에 대한 불만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 가설로 요약될 수 있다.

가설 1. 전반적 삶의 만족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여타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하여도 둘간의 관계는 적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절대적 소득 수준은 소득에 대한 만족 및 전반적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절대적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 규모가 소득에 대한 만족 및 전반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며, 반면 절대적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이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가설 1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소득에 대한 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며, 가설 2는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이다. 가설 1은 소득에 대한 자족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해 중요하다는 주장이라면, 가설 2는 소득 그 자체 또한 삶에 대한 만족에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설 3은 소득과 만족도간에는 체계적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은 생활 전반 및 5개의 삶의 개별 영역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생활전반, 가구 소득, 가족 관계, 여가활동, 주거 환경에 대하여는 각각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근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생활의 차원을 5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가능성, 근무환경) 각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값의 산술 평균을 취하였다²⁾. 여기서 구분한 5개의 삶의 영역은 한편으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별 영역의 수를 제한한 결과이기도 하나,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파악된 삶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중요한 삶의 개별 영역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 및 객관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빠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소득은 가구 소득으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과 이전소득 등으로 자세히 구분된 항목을 합산하여 구하였으므로 비교적 신뢰도 있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만이 아니라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임금 수준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 소득과 동시에 개인의 임금에 대한 정보또한 수집하였다. 개인의 물질적 복리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경제 수준에 의하여 주로 좌우되기는 하나, 주관적 만족도는 개인적인 경

2) 일의 다섯 개 차원을 수리적 단순 평균 방식으로 종합하여 근로생활이라는 단일지표로 만든 것은 분석의 용이성이라는 이유 외에도 다섯 개 차원의 주성분분석결과 체 1주성분(임금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각각 전체 변량의 54.4%와 56.4%를 설명함)이 다섯 개의 차원에 걸리는 부하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차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단순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서구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임(Schultz and Schultz, 1990 : 339-340).

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임금 혹은 소득에 만족하는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측정된 만족도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구 소득 혹은 취업자의 경우 개인의 임금과 함께 교육수준, 직업, 연령, 성별, 혼인상태, 종교 등의 사회인구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이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이 적용되었다. 하나는 소득 규모별로 10분위 지점을 계산한 후 각 구간별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및 소득에 자연대수값을 취한 항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델을 설정하여 소득에 대한 회귀계수의 부호와 자연대수값을 취한 항의 회귀계수의 부호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비선형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므로써 비선형관계의 존재 및 이러한 관계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6월에서 10월에 걸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확률표집 조사로서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 13,000명에 대하여 경제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담고 있다³⁾. 이 조사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태와 태도를 조사할 목적에서 계획되었으므로, 주관적 삶의 질을 주제로 한 본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몇 가지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관적 삶의 질이 개개인의 경험이나 태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 더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비확률표집 조사이던지 혹은 학생, 취업자 등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 데 반해, 이 조사 자료는 전국 도시거주자들에 대한 확률표집에 따라 조사되었으면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태도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조사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소득에 관련된 사항이 매우 상세히 조사됨으로서 소득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조사 총 표집수 13,738명 중 만족도 항목 등에 대하여 응답이 불충실하게 이루어진 421사례를 뺀 13,31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이 조사자료의 표집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하남 외(1999)의 1장을 참고할 것.

Ⅲ. 분석 결과

1) 만족도의 평균적 수준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전반적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척도로 측정했을 때, 전반적 삶의 수준은 '보통이다'에 약간 못 미치는 것(2.89점)으로 나타난다(〈표 1〉). 이는 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경우와 크게 대비되며, 우리나라의 기존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을 보이는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김왕배, 1995; 조명한, 차경호, 1999; Campbell et al, 1976). 외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소극적인 의사표현 경향에 기인한 문화적 차이로 추정되며, 기존의 국내 연구와의 격차는 아마도 이 조사의 시점인 1998년 6월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매우 위축되었던 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표 1〉 생활전반 및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생활전반	가구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활동	근로생활
평균	2.89	2.53	3.71	2.76	3.07	2.86
표준편차	0.91	0.93	0.83	0.92	0.90	0.71

* 만족도 값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으로 측정됨.

영역별 만족 수준의 차이를 보면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여가생활 및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여타 영역의 만족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산포된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반적 삶의 만족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이 차지하는 비중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함께 5개의 개별 영역들에 대하여 측정된 만족도들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개별 영역별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r=0.691$). 기존의 연구(조명한, 차경호, 1999; 중앙일보, 1997; Campbell et al, 1976)에서 가구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 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r=0.35-0.48$ 범위로 조사되었던 점과 비교할 때 본 조사에서는 수입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잡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입에 대한 조사 항목이 매우 상세히 구분되어 소득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을 조사하는 척도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상위 소득자들의 과소 보고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 조사를 시행한 시점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이므로 소득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더 긴박하게 인식한 탓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표 2> 생활 전반 및 영역별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생활전반	가구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구소득	0.691				
가족관계	0.372	0.255			
여가활동	0.488	0.457	0.263		
주거환경	0.456	0.400	0.357	0.459	
근로활동	0.475	0.531	0.237	0.398	0.325

* 모든 상관계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가구수입에 대한 만족과 일에 대한 만족은 다른 영역의 만족도간의 관계보다도 더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r=0.531$). 한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수입에 대한 만족도 및 근로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0.255, 0.237$). 즉 가족 생활에 만족하는가 여부는 가구수입의 다과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여부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한다는 상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가구수입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 생활 만족과 맺는 관계는 여타 삶의 개별영역을 통제하여도 적지 않으리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

고 수입을 포함한 5개의 개별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을 독립 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검토해 보았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취업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항목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으며(〈표 3a〉),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표 3b〉).

〈표 3a〉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	.614 (15.8)	-	.330 (8.9)
log (소득에 대한 만족)	.080 (0.91)a	-	.325 (4.0)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	.171 (14.4)	.166 (15.9)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	.245 (21.9)	.134 (13.2)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	.153 (13.4)	.098 (9.7)
근로활동에 대한 만족	-	.360 (25.8)	.125 (9.3)
R-square	.432	.367	.514

* N = 6382, 괄호는 t-value임.

a.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여타 계수는 모두 $p < 0.01$ 에서 유의미함.

〈표 3b〉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취업자)

	Model1	Model2	Model3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	.635 (18.3)	-	.397 (12.3)
log (소득에 대한 만족)	.153 (2.0)a	-	.315 (4.5)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	.222 (19.6)	.161 (17.5)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	.315 (28.8)	.141 (15.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	.273 (23.2)	.138 (14.1)
R-square	.519	.380	.598

* N = 6849, 괄호는 t-value임.

a.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여타 계수는 모두 $p < 0.01$ 에서 유의미함.

이 회귀모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당 부분이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량의 43.2%를, 비취업자의 경우 51.9%를 각각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설명하고 있다. 수입에 관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의 회귀계수와 마찬가지로 이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의 회귀계수 또한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뒤에 자세히 검토하듯이 이러한 비선형관계는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것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체감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으나($r^2 = 0.367, 0.380$), 이들 모두의 영향력을 합하여도 소득의 영향력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때, 다음으로 큰 기여를 하는 영역은 어느 것인지를 알기 위해 수입 만족도의 영향을 배제하고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 하위 영역의 만족도간의 부분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 수입 만족도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에 대한 만족의 순으로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분상관계수는 각각, 0.262, 0.257, 0.240, 0.197임). 즉 수입의 영역과는 독립적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게 된다.

3)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가구 소득과 가구 소득 만족도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개인을 단위로 하여 개인 소득과 개인 소득 만족도간의 관계를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모두를 검토한다.

먼저 가구 소득과 가구 소득 만족도간의 관계를 보면(〈표 4〉), 둘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r=0.298$). 가구수입과 생활전반의 만족도와의 상관도는 가구 소득 만족도와의 상관 정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r=0.241$). 가구 소득과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는 서구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구 산업국들의 경우 이 둘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대개 0.1-0.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태국이나 터어키의 경우 0.3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된다 (Campbell, et al, 1976 ; Diener, et al, 1993 ; Oswald, 1997 ; Leelakulthanit and Day, 1993 ; Gitmez and Morcoi, 1994)⁴⁾.

〈표 4〉 가구 소득과 분야별 만족도간의 관계

영역	생활전반	가구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생활
상관계수	.241	.298	.111	.135	.155	.224

* 모든 상관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다음에는 취업자들에 한정해서 볼 때, 취업자들 개인의 소득과 개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개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개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들의 경우 가족소득 만족도는 평균 2.54임에 비하여 개인소득 만족도는 2.39로 개인소득 만족도가 0.15정도 낮다.

개인소득과 개인소득 만족도간의 관련은 그렇게 높지 않다($r=0.251$). 가구수입과 가구수입 만족도간의 상관도($r=0.298$)보다 더 낮다(〈표 5〉). 또한 개인소득과 생활 전반의 만족도와의 관련도 가구 소득과의 경우보다 상관도가 낮으며($r=0.241$ 대 0.232), 삶의 개별 영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예외라면 근로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맺는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소득의 경우가 가구 소득의 경우보다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r=0.224$ 대 0.271).

4) 캠벨의 분석과 같이 (Campbell, et al., 197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가 전혀 없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가구수입과 생활 만족도 및 가구수입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상관도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구수입과 생활만족도 및 가구수입 만족도와는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earson's r 은 각각 0.165와 0.230임).

〈표 5〉 개인 소득과 분야별 만족도간의 관계

영역	생활전반	개인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생활
상관계수	.232	.251	.119	.158	.118	.271

* 모든 상관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즉 가구 소득이 경우이나 개인 소득의 경우이나 절대적 소득 수준과 만족도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의 강도는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작으나 저소득 국가들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과 만족도간 관계의 비선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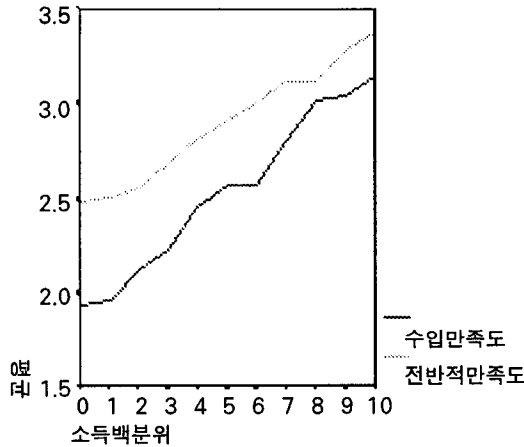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과 만족도간에 관계가 크며, 고소득자의 경우 이 둘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리라는 점은 소득 10분위별 만족도 분포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자연대수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비선형함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다음의 〈표/그림 6〉은 가구 소득 분포의 10분위별 만족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0번째 소득 10분위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월가구 소득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소득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다(만족도는 각각 3.15와 3.37임). 이는 소득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소득 수준이 어느 수준을 넘어선 경우 둘간의 관계는 매우 미미하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키고 있다(Diener, 1993). 한편 소득 분포의 중간을 차지하는 다섯 번째 10분위점의 사람들은 가구 소득에 대하여는 물론 생활 전반에 대하여도 '보통' 보다는 불만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만족도는 각각 2.57과 2.91임). 이 그림을 살펴보면, 고위 소득자들의 경우 가구 소득과 만족도간에 관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최저소득 분위를 제외할 때, 저소득자들의 경우 이 관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그림 상에서 어렵듯이 추정할 수는 있으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표/그림 6〉 가구소득 10분위별 만족도 분포

10분위	0	1	2	3	4	5	6	7	8	9	10
생활전반	2.48	2.51	2.56	2.68	2.81	2.91	3.0	3.12	3.12	3.28	3.37
가구소득	1.94	1.96	2.12	2.22	2.46	2.57	2.57	2.80	3.01	3.04	3.15
소득액(만원)	0	30	61	92	110	140	155	200	230	300	2667*

* 10번째 10분위값인 2,667만원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1,000만원 이상 수입자의 만족도 평균을 구함.



한편, 수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소득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회귀 모델을 검토해 보면(〈표 6-1〉), 가구 소득의 회귀계수와 이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의 회귀계수가 둘 다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연대수를 취한 변수를 추가했을 경우 가구 소득만을 포함했을 때와 비교하여 설명력이 2%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와 회귀방정식을 통해 실제 수입과 수입 만족도간에는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며, 둘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소득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	0.0009 (14.4)*
Log(가구소득)	0.16 (21.3)*
R-square	.119
R-square(가구수입만 포함)	.089

*p<0.01수준에서 유의미함

가구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개인소득 분포의 10분위점 각각에 대하여 생활전반과 개인소득의 만족도 평균을 계산하여 보았다. 가구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열 번째 10분위점에 있는 매우 돈 잘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만족도 평균은 각각 3.21, 3.47임),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다소 불만(2.47)이며, 생활전반에 대해서는 보통(3.08)이라고 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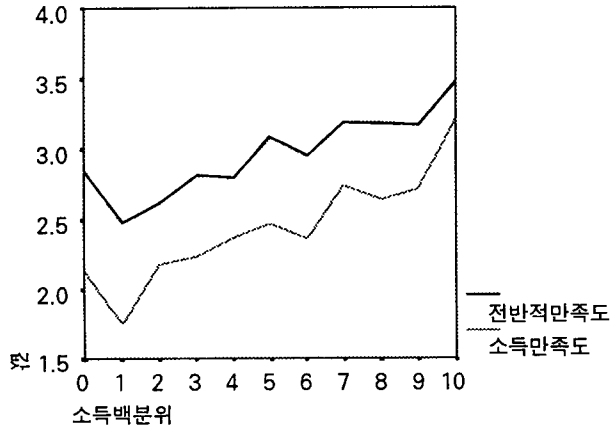
개인소득 10분위별 전반적 생활 만족도와 개인소득 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위의 가구 소득의 경우보다 곡선의 굴곡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표/그림 7〉).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첫 번째 소득 10분위 사람들보다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첫 번째 10분위 소득자들보다 더 버는 데도 낮추어 보고한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이러한 현상이 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할텐데 왜 개인소득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자들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의 경우와 가구 소득의 경우는 상이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9번째 10분위자들과 10번째 10분위자들간의 만족도의 격차가 매우 큰 데,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소득의 측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최하위 범주 및 최상위 범주 소득의 경우에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개방형 범주의 경우 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이 구간에서 변수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구 소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소득의 자연대수항을 포함한 회귀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개인소득과 소득의 만족도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둘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그림 7〉 개인소득 10분위별 만족도 분포

10분위	0	1	2	3	4	5	6	7	8	9	10
생활전반	2.85	2.48	2.62	2.82	2.79	3.08	2.95	3.19	3.19	3.16	3.47
개인소득	2.14	1.76	2.18	2.24	2.37	2.47	2.36	2.74	2.64	2.72	3.21
소득액(만원)	0	11	50	60	80	97	100	130	150	200	2000*

* 10번째 10분위값인 2,000만원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500만원 이상 수입자의 만족도 평균을 구함.



5)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해 보았다. 〈표 8〉에서 가구 소득만을 포함한 모델(모델1)과, 인구학적 요인과 교육 변수만을 포함한 모델(모델2)과, 경제활동상태만을 포함한 모델(모델 3)과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포함한 모델(모델4)로 구분하여 각 변수 집단들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았다. 특징적인 점은 소득 및 기타 관련변수를 모두 포함하여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변량의 10.5%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50%이상을 설명한 것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룬다. 객관적 조건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서구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서구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디너(Diener)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구의 연구들에서도 객관적 조건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8-20%로 보고되고 있다(Diener 1999 : 278-279).

〈표 8〉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가구소득	0.0007			.0006 (9.8)**
Log(가구소득)	(11.6)**			.11 (14.5)**
	0.12 (16.8)**			
연령		-.003 (5.0)**		-.002 (3.3)**
성별 ^a		-.03 (1.8)*		-.007 (0.4)
혼인상태 ^a 미혼		.25 (6.3)**		.22 (5.5)**
기혼유배우		.23(8.0)**		.18 (6.2)**
종교 ^a		.06(3.8)**		.05 (3.2)**
교육 ^a 고졸		.05(2.7)**		.03 (1.6)*
대졸미만		.24(9.3)**		.19 (7.4)**
대졸이상		.38(14.4)**		.27 (10.2)**
취업형태 ^a 임금근로자			.13 (7.0)**	.003 (0.15)
자영업자			-.03 (1.6)*	-.04 (2.0)**
실업자			-.16 (3.1)**	-.23 (4.6)**
R-square	.078	.049	.006	.105

N=12966.

a 여성, 사별/이혼, 종교없음, 고졸미만, 비취업이 각각 준거집단임.

* p<0.05 수준에서, **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는 t-value 임.

변수별 영향력을 보면, 가구 소득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유배우자 보다는 미혼이, 종교를 갖은 경우가 갖지 않은 경우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자가 더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성별은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생활이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음의 〈표 8-1〉에서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생활 영역의 변수가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만이 아니라 응답자 자신의 개인소득 또한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단순노무직보다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과 근로시간이 통제된 모델 2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시간이 짧은 임금근

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소득 및 노동시간에서라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생활만족도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임금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던 조사 시점 때문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근로조건은 열악하지만 일과 여타 생활 영역간에 자율적 조정이 임금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최적화하도록 자신의 일과 여타 생활 전반을 조직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앞의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상태 즉 비경제활동자인지 혹은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직업 등의 근로 활동내용 또한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자의 경우)

	model1	model2
가구소득	.0003 (2.3)**	.0002 (1.8)*
Log(가구소득)	.17 (8.9)**	.16 (8.3)**
개인소득	.001 (10.4)**	.001 (9.3)**
임금근로자		-.07 (2.2)**
근로시간		-.0005 (2.2)**
직업a		
관리전문직		.26 (6.4)**
사무직		.24 (5.8)**
서비스/판매직		.05 (0.9)
기능/조립직		.02(0.5)
R-square	.085	.098

N= 5857

a. 자영업, 단순노무직이 각각 준거집단임.

* $p < 0.05$ 수준에서,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괄호는 t-value임.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에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반적 삶에 대

한 만족을 주관적으로 질 높은 삶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러한 주관적인 만족은 삶의 개별 영역에서의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가구소득,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의 5개 삶의 개별영역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의 50% 이상을 설명하는 데, 그중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만으로도 40% 이상이 설명되며,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만족간에는 체감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보통 이하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소득 만족도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관계는 피어슨 계수로 0.25 전후이며, 이는 고소득국들보다는 높으나 저소득국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구 소득의 경우나 개인 소득의 경우나 유사하게 실제 소득이 소득만족도의 10%정도의 변이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생활만족도의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변량의 10% 정도만을 설명할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전반의 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 국가들은 물론 국내의 다른 어느 연구 결과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이 부분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연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소득 수준에 대하여도 이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사회안전망이 미발달하여 있는 사회의 경우가 안전망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교하여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조사 시점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대량실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어 있었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저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고, 고소득자들의 경우 이 영향력이 낮다는 가설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분포와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었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격차가 예상했던 정도로 현저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즉 저소득자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크지는 않다는 결론인데, 빈곤수준이하에 처한 인구가 아직도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의외이다. 이는 앞서 외적 조건들이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같은 맥락의 발견인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여도 역시 삶의 만족을 좌우하는 것은 소득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격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삶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괄하는 설명 모델을 도입하여 소득과 만족도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보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제약으로 삶의 질에 대한 보다 타당성 높은 척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인 '건강'을 빼놓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 한계이다.

참고문헌

- 김정오(1994),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인 삶의 질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 : 169-228.
- 방하남 외(1999),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오경자(1998), "실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998 연차발표논문.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 주관적 안녕》, 법문사.
- 이훈구·이혜주(1998), "한국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 1998 연차발표논문
- 조명한·김정오(1993), "정보화와 삶의 질 :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 3-31.
- 조명한·김정오·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 61-94.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집문당.
- 중앙일보(1977.1.1), "한국인의 삶의 질" 조사결과 특집기사.
- 김왕배(1995), "한국근로자들의 삶의 질 : 사회의식과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pp. 107-138.
- 정철희(1995), "한국근로자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pp. 139-172.
- 박경태·박병영·유석춘·이선이·이영희(1995),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pp. 25-106.
- 이현승(1997), "한국인의 삶의 질 :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1집 여름호 : 269-30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인의 인간가치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리서치(1992), 《아시아 6개국의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리서치.
- Campbell, A., P.E. Converse, W.L.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 542-575.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and Diener, M.(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 195-223.

- Diener, E., Suh E.M., Lucas R., and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 276-302.
-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 Davis and M.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Academic Press, pp. 89-125.
- Feist G.F., Bodner T.E., Jacobs J.F., Miles M., and Tan V.(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8(1) : 138-150.
- Gitmez, A.S. and G. Morcoi.(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 77-98.
- Inglehart, R. and P. Abramson.(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1970-1993,"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 336-354.
- Leelakulthanit, O. and R. Day.(1993), "Cross Cultural Comparisons of Quality of Life of Thais and America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0 : 49-70.
- Oswald, A. 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 : 1815-1837.
- Schultz, D. P. and Schultz, S.E.(1990), *Psychology and Industry Today*, Macmillan.
- Shin, D.C., Ahn, C.S., Kim, K.D., and Lee, H.K.(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on Korea,"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12 : 393-416.
- Shuessler, K. F. and Fisher, G. A.(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 129-149.
- Sirgy, M. J.(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 Research* 43 : 227-260.
- Strumpel, B. (ed.). (1972),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OECD.
- Tang, Kwong-Leung(1999),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7 : 69-96
- Thoits. P and Hannan. M.(1979), "Income and Psychological Distress : the Impact of an Income-maintenance Experi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 120-138.

abstract

Impact of Incom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Hyun Song Le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asured as satisfaction of life. Life is divided into five areas analytically : household income, family, work, leisure, and dwelling environment. A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ore than 50 percent of variation of satisfaction of one's whole life are explained by the satisfaction with these five areas of life. The satisfaction with income turned out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explaining as much as 40% of whole life satisfaction. I also found that the satisfaction with income provides diminishing returns on whole life satisfaction.

Koreans report they are unsatisfied rather than satisfied on average with their lives. Despite a larg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income and satisfaction of whole life, real income is related to a small extent to the satisfaction of whole life. The explanatory power of income on life satisfaction is as little as 10 perc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bjective conditions of life have minimal impa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Koreans, even though income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for their lives than other areas of life.

Key Words :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income